"출판물 복사도 저작권료 내야"

일본, 내년에 '複寫權센터' 발족…징수 · 분배방법엔 난점도

서적 · 잡지 등 저작물의 카피 이용자로부터 일괄해서 저작권료를 징수, 관리하는 '일본 복사권 센터'가 내년 5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된다. 이와 유사한 저작권집중처리기구는 세계 16개국에 설치돼 있는데, 일본에는 아직까지 없어 "복사기를 수출하는데는 열심이지만 저작권 보호에서는 전혀 후진국"이라고 歐美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 왔다. 저작권료의 징수나 분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용자측의 협력은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등 어려운 문제는 많지만, 일본도 위법복사물로부터 저작권을 수호하는 제도적 확립에 첫발을 내디디게 됨으로써, 현재 불법복사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 출판계에도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歐美에서는 이미 일반화

1970년에 전면 개정된 현행 일본저작권법에서는, 서적이나 잡지 등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개인적으로 한정된 범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 자신이 복제할 수 있다"고 개인에 의한 영세한 복사를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다.

도서관 등 별도로 규정이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복사행위는 모두 위법이다. 기업이 잡지나 서적에서 그 일부를 복사, 회의의 참고자료로 배부하거나 대학 등에서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무단으로 대량 복사해 수업에 사용하는 것도 위법이다.

그러나 이런 복사물을 만들 때 일일이 저작권자를 조사해서 그 전원에게 편지로 양해를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법상태는 존재하지만, 저작권 처리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무단복사도 묵인돼온 것이 실정이다.

최근 18년간 복사기의 수는 격증했다. 일본사무기계공업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용 복사기 출하대수는 10년 전에 16만대였던 것이 작년에는 59만대로 4배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카피 이용의 일정 부분이 저작물의 무단복사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본서적출판협회 등이 작년에 실시한 조사로는, 상장기업의 복사물 중 출판물로부터의 복사가 전체의 7.1%나 되며, 이것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40%에 이른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일본 전체에서 87년 1년 동안에 복사된 서적은 1,200만권, 잡지는 1,500만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50억엔(약 2천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이것들이 모두 복사 피해라기엔 속단이지만, 무단복사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상당한 액수인 것만은 확실하다.

저작권을 중시하는 歐美에서는 30년 전의 서독을 시작으로 각각 저작권을 집중처리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출판사등이 10년 전에 저작권집중처리기구(CCC)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복사 1건마다 건별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사무가 너무 번잡스러워, 5년 전에 기업 등 대량이용자와 일정기간의 이용실적을 근거로 일정액을 징수하는 포괄계약방식을 채용하면서부터는 혹자를 내게 됐다. 한편 서독에서는 복사기의 카피능력에 따라 미리 기계에 저작권료를 上乘시키는 독자적인 방식을 채용하는 등, 징수방법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복사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서적 · 잡지 등 출판물의 무단복사에 따른 저작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량의 복사이용자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제도가 확립돼 있다.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높여

내년에 발족할 일본복사권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미의 예 등을 참고로 징수나 분배방법에 대한 업무계약을 작성하게 된다. 그 내용은 대체로, 복사권은 원칙적으로 학회나 협회로부터 일괄해서 센터가 위탁을 받고, 이와 병행해서 기업이나 대학 등 대량의 카피 이용자와 계약, 그 사용실적에 의거 이용자별로 요금을 결정하는 '포괄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센터측의 움직임에 대해, 기업 등 카피 대량이용자의 일부는 "갑작스레 큰 금액을 요구하면 곤란하다"는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준비위원회의 관계자는 "미국이나 서독의 기관이 저작권료로 얻는 돈은 연간 10억엔이 안된다. 일본만이 많이 징수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구미의 수준이 목표임을 시사하고 있다.

저작권료 징수가 어떤 형태가 되든, 센터의 발족이 지금까지 별로 돌아보지 않았던 서적이나 잡지 등 출판물의 저작권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는 효과는 극히 크다.

학회 중에는 서둘러 학회지에의 투고규정을 개정,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한다"고 저작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한 곳도 적지 않다. 어쨌든 출판물의 복사에 관한 저작권은 센터 설립으로 이제 겨우 현실문제로 등장했다는 인상이 강하다.

〈근착 외지에서〉

좋은 인연
함께 일할 분을 찾습니다.

편집부
편집경험 1년 이상, 영어 해독능력이 있으며 명상이나 종교·문학·철학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분. 글로써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

영업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군대를 다녀온 25세 전후의 남자분.

739-2520

입력에서 출력까지
온라인전산시스템 가동
유진 AD
273-6486
광고기획 / 편집 / 사진식자 / 전산식자
FAX 273-6173
■ 레이져프린트를 이용한 교정 ■

서울 · 종로구 견지동110 -33(덕수B/D 102호)
☎(代) 733—5755
眞影社
책자전문업체
電算寫植組版 SYSTEM
▒ 레이져프린트로 완벽한 교정
▒ 한자 한자에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전래동화 교육론
전래동화는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
전래동화 교육이론과 실제

최윤식 김기창 공저
집문당 서울 중구 신당동 251-1 ☎ 252-4657, 234-2227